

# 王夫之 《薑齋文集·尺牘十首》 역해

조성천\*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병인년에 아우와 조카에게(丙寅歲寄弟姪)
  - 2.2 조카 아문에게 보내네(與我文姪)
  - 2.3 조카 아문에게 또 보내네(又與我文姪)
  - 2.4 조카 유중에게 보내네(與幼重姪)
  - 2.5 조카 유중에게 또 보내네(又與幼重姪)
  - 2.6 이필 아우에게 보내네(與爾弼弟)
  - 2.7 아들과 조카들 보게(示子姪)
  - 2.8 아문 조카 보게(示姪我文)
  - 2.9 아문 조카 또 보게(又)
3. 결론

## 1. 서론

書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종의 의사소통 및 개인간의 교제 수단이 되었다. 중국 전통 글쓰기에서 서신을 총칭하는 말로 ‘書’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공문 성격 경우에는 上書·奏書라 하고 개인 성격의 경우에는 書牘·書札·書簡이라 하였다. 서신은 또한 사용하는 용구에 따라 명칭을 붙였다. 簡·箋·札·牘 등은 竹簡이나 木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것이고, 尺牘·尺素·尺翰 등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 中國古代文學批評과 王夫之詩學 研究.

은 사용하는 木簡·絹帛 등이 대략 좌우 一尺이 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函은 서신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봉투에 따라 명칭을 얻은 것이다. 이 가운데 尺牘은 원래 木牘으로 木書·版書 혹은 版牘이라 하였다. 일정한 규격이 있는 목판을 사용하여 문장을 새긴 뒤에 만든 서적형식이다. 木牘의 규격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一尺一寸'이다. 때문에 尺牘이라 하였다. 尺牘은 대부분 書法·繪畫에서 사용하였지만, 나중에는 점차 서신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다. 尺牘의 흥성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서신 왕래는 書法의 발전에 광활한 공간과 무대를 제공하였다. 書法의 각도에서 尺牘은 점차 일종의 특수한 형태와 체제가 되어 書(詩)稿·奏章·匾額·對聯·條·斗方 등의 표현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서신은 다른 글쓰기 양식과는 달리 의사 표현이 매우 자유스럽고 자신의 내면의 진솔한 감정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모든 글쓰기 가운데서 가장 광범위하였다. 크게는 국가대사, 학술토론, 인물평가 등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생활, 신변잡사, 소소한 일 등에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또한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어떤 경우는 서사적으로 어떤 경우는 설리적으로 어떤 경우는 서정적이었다. 그 장단에 있어서도 때로는 큰 편폭으로 때로는 작은 편폭으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서신은 크게는 시대의 사회상황, 인정세태를 살펴볼 수 있고 작게는 개인의 사상, 성격, 생활 감정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인물의 철학,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서신(尺牘)을 고찰하는 이유이다.

王夫之《薑齋文集》의 문체는 論·倣符命·連珠·傳·行狀·墓誌銘·書後·跋·啓·尺牘·九昭·九礪(闕)·賦·贊·銘·家世節錄·說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尺牘에 있어서 여러 판본의 《薑齋文集》에는 명목상 <尺牘十首>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질손 생변에게 주는 시(示姪孫生蕃詩)><sup>1)</sup> 1편이 《강

1) 忘却人間事，始識書中字。識得書中字，自會人間事。俗氣如糶糊，封令心竅閉。  
俗氣如嵐瘴，寒往熱又至。俗氣如炎蒸，而往依坑廁。俗氣如游蜂，痴迷投窗紙。  
堂堂大丈夫，與古人何異。萬里任翱翔，何肯縛雙翅。鹽米及鷄豚，瑣屑計微利。  
市賈及村氓，與之爭客氣。以我千金軀，輕入茶酒肆。汗流浹衣裾，挈三而道四。

재시승고(薑齋詩勝稿)》에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 판본의 《薑齋文集》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그래서《薑齋文集》에서의 尺牘은 실제로는 9수가 된다.<sup>2)</sup> 《薑齋文集》에 실려있는 총 9수의 尺牘에는 왕부지 개인의 진솔한 생활감정이 표현되어 학술문장 등에서 볼 수 없는 개인 삶의 자취가 들어있다. 때문에 왕부지의 개인적 삶과 진솔한 생활감정을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왕부지를 하나의 걸출한 철학자, 사상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통 인간으로서 주변 환경 및 인물들과 어떠한 인간적 교류를 하였는지를 연구함에 있어서 척독의 중요성과 척독에 대한 역주의 필요성을 말한다.

본고는 기존연구를 참고하고<sup>3)</sup> 太平洋書店·中華書局·嶽麓書社 등의 판본을 토대로 《薑齋文集》의 尺牘 총 9수를 역주하고자 한다. 표점 및 단락 구분 및 문장부호는 모두 嶽麓書社의 판본 《薑齋文集》(《船山全書》第15冊, 湖南省, 長沙, 1995년)을 따른다. 번역은 축자번역을 지향하되 의미의 순통을 위해서는 간혹 약간의 보어를 넣어 번역한다. 본문 해석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점 혹은 참고할 점이 있을 경우 각주를 통해서 밝힌다.

이러한 역주를 통해 왕부지의 가문에서 서신왕래 속에 나타난 인간적 면모와 사상 감정 및 척독의 내용과 형식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家系 연구에 참고가 된다.

既爲儒者流, 非胥亦非吏。高談問訟獄, 開口卽賦稅。議論官貪廉, 張唇任譏刺。  
拙者任吾欺, 賢者還生忌。摩肩觀戲場, 結友禮廟寺。半載織錦袜, 幾領厚棉絮。  
更僕數不窮, 總是孽風吹。吾家自維揚, 來此十三世。雖有文武殊, 所向惟廉耻。  
不隨濁水流, 宗支幸不墜。傳家一卷書, 唯在汝立志。鳳飛九千仞, 燕雀獨相視。  
不飲酸臭漿, 閑看傍人醉。識字識得眞, 俗氣自遠避。人字兩撇捺, 元與禽字異。  
瀟洒不黏泥, 便與天無二。汝年正英妙, 高遠何難志。医俗無別方, 唯有讀書是。

2) “중화(中華)본 원주(原注)에서 “이 10수가 원각본에는 빠져 있는데, 지금 형양(衡陽) 각본(刻本)《보유(補遺)》권일(卷一)로부터 옮겨 보충한다. 제10수는 <시질손생번시(示姪孫生蕃詩)>인데 이미 《강재시승고(薑齋詩勝稿)》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산거한다.”라고 하였다(《선산전서(船山全書)》제15책·《강재문집(薑齋文集)》, 142쪽). 이로써 《강재문집(薑齋文集)》에는 尺牘 9편이 실려 있다.

3) 平慧善 注譯, 周鳳五 校閱 《新譯薑齋文集》, 臺北, 三民書局, 1998.

## 2. 본론

### 2.1 병인년에 아우와 조카에게 보내네(丙寅歲<sup>4</sup>)寄弟姪)

셋째 형 석애(石崖)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 어진 아우와 조카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멀리서 달려와 융숭한 예절로 장례를 잘 치룬 것은 진실로 조상의 복과 은혜가 배풀어 진 것이요, 정말로 어진 아우와 조카들이 돈독하고 화목하며 후덕하기 때문이라네. 우리 가문은 이로써 무궁하게 번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네. 나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말로는 그 심정을 다 할 수 없었다네. 그러나 손님들이 북적이고 상중의 일이 번잡해서 자네들을 데리고 시원스럽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늙은 이가 말하고 싶었던 정회를 드러낼 수 없어서 유감이었네. 병든 몸은 날마다 쇠약해지니 나중의 만남은 또 언제일지 알 수 없다네. 나는 우리 가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네. 단지 은거하여 지내며 스스로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을 각박하게 대해서 조상에게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았네. 지금 나이가 이미 늙었지만 아직도 오직 이 마음만은 가지고 있으니, 가문이 화평의 복을 받아서 자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감히 직언으로 우리 종족에게 권계하고자 하네. 이것은 이필(爾弼)·지일(指日) 두 아우가 윗사람의 위치에 있으니 마땅히 마음을 합쳐 가문 교육을 일으키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네. 가문이 화목하는 길은 (가문 사람들끼리)말의 잘못, 예절의 잘못으로 마음에 원한을 쌓아서 안 된다네. 만약 옳지 않음이 있을 때는 면책(面責)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제발 마음속에 감추고서 원한을 쌓아서 안 된다네. 천하는 매우 크고 천하 사람들은 매우 많아 나와 같은 부자, 나와 같은 빈자, 나와 같

4) 丙寅歲: 병인(丙寅)은 강희(康熙) 25년(1688년)을 말한다. 이 때 왕부지 나이는 68세이다.

은 강자, 나와 같은 약자가 수천만 이지만, 약자는 강자를 시기해서는 안 되고 강자는 약자를 기만하고 모욕해서는 안 되니, 하물며 자신의 골육 간에 있어서라! 빈천하고 약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가련한 생각을 해서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하고 부유하고 강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니, 우리 집안은 다행히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을 유지할 수 있었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좌측 눈이 병으로 흐릿해졌지만 우측 눈은 밝게 빛난다면, 우측 눈이 어떻게 좌측 눈을 기만하여 재 가루를 그 속에 뿌리겠는가! 또 만약 한 사람의 오른 손은 불편함이 없는데 왼 손이 아프면 왼 손이 어찌 오른 손을 질투하여 함께 아프기를 바라겠는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고 탁월하지는 못하면서, 단지 자기 가문의 골육만을 찾아 서로 속이고 서로 시기하면 사람 같지 않다네. 이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네! 이전에는 더러 자질구레한 일들로 화를 내어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관청에까지 가서 추악한 꼴을 드러낸 것과 같은 것이니,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네.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항상 지난번에 셋째 형 영구 앞에서 모두 화순하고 골육이 서로 연계된 것처럼 해야 한다네. 단 칼로 이전의 좋지 않은 마음들을 베어내고 늙은이의 이 말을 듣고 광명정대, 관용자애를 우리 가문의 풍도로 삼아야 한다네. 다행히 조상의 음덕으로 우리 가문에는 고난이 없었으니, (조상의 음덕을)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 아우와 조카들이 지난 번 가문의 상례를 정중하고 공손하게 치러주어, 깊이 감동하고 또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 이 필·지일 두 아우와 아문(我文) 조카는 마땅히 이러한 내 뜻을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길 바라네. 아문 조카는 공평하고 인자하니 만약 소소한 불평이 있더라도 그 권계를 마땅히 들어야 하며 혹여 반(放)·어(敵) 두 사람에게 알린다 해도 무방하다네. 다만 일체의 모든 감정을 잊어버리고 온 가문이 즐겁고 단란하기만을 바랄 뿐이네. 할 말은 끝없이 많지만 다하지 못했다네.

三兄之喪<sup>5)</sup>, 賢弟姪跋涉遠赴, 隆禮致祭, 固祖宗福澤所垂, 實賢弟姪敦睦厚道<sup>6)</sup>, 足知吾家自此昌盛無窮矣。愚兄且悲且喜, 言不能盡。但恨客繁事冗, 不能相陪快談, 以展老夫欲言之懷。病軀日衰, 後會又未知何日也。愚於家族素未能致一情。但養拙<sup>7)</sup>自守, 不敢一絲刻薄, 得罪先人。今年已衰老, 惟有此心, 願家族受和平之福以貽子孫, 敢以直言爲吾宗勸戒, 此爾彌指日<sup>8)</sup>二弟居尊長之位, 所宜同心以修家教者也。和睦之道, 勿以言語之失, 禮節之失, 心生芥蒂<sup>9)</sup>。如有不是, 何妨面責, 愼<sup>10)</sup>勿藏之於心, 以積怨恨。天下甚大, 天下人甚多, 富似我者, 貧似我者, 強似我者, 弱似我者, 千千萬萬, 尙然弱者不可妒忌強者, 強者不可欺陵弱者, 何況自己骨肉! 有貧弱者, 當生憐念, 扶助安生; 有富強者, 當生歡喜心, 吾家幸有此人撐持門戶。譬如一人左眼生翳, 右眼光明, 右眼豈欺左眼, 以灰屑投其中乎! 又如一人右手便利, 左手風痺<sup>11)</sup>, 左手豈妒忌右手, 願其同癱瘓乎! 不能於千人萬人中出頭出色<sup>12)</sup>, 只尋著自家骨肉中相陵相忌, 只便是不成人。戒之, 戒之! 從前或有些小事動閒氣, 如往歲到官出醜, 愚甚恨之。願自今以後, 長似昨在三兄柩前, 和和順順, 骨肉相關一般, 一刀割斷前日不好之心, 聽老夫此語, 光明正大, 寬柔慈厚, 作一家風範。幸祖宗覆庇, 無門戶之苦, 可不念哉! 因諸弟姪昨日厚於家庭之義<sup>13)</sup>, 深爲感慰, 故進愚言。爾彌指日二弟、我文<sup>14)</sup>姪, 當以此徧告衆位。我文公平仁恕, 若有小小不平, 當聽

5) 三兄之喪: 삼형(三兄)은 왕부지의 장형 왕개지(王介之)로 병인(丙寅)년 정월 삼십일에 죽었는데 향연 80이었다.

6) 厚道: 사람됨이 선량하며 마음이 넓고 각박하지 않음을 형용.

7) 養拙: 재능이 낮아서 한가하게 처하며 세월 보냄. 은퇴하여 벼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겸사로 상용됨.

8) 爾彌指日: 이필(爾彌)은 이름이 양좌(良佐)로 왕빙현(王聘賢)의 둘째 아들이며 왕부지 가문의 아우(族弟)이고, 지일(指日)은 이름이 순지(順之)로 왕성빙(王星聘)의 이들이며 왕부지 가문의 아우.

9) 芥蒂: 개채(芥蒂)로도 씀. 작은 걸림 물. 마음속에 쌓인 원한·불만·불쾌를 비유.

10) 愼: 부사로서 물(勿)·무(毋)·막(莫) 등과 연용하여 금지를 나타내며, 반드시·제발 등에 해당.

11) 風痺: 바람·한기·습기가 침습하여 일으키는 팔다리가 쭈시고 저리는 통증.

12) 出頭出色: 출두(出頭)는 다른 사람을 뛰어넘다. 출색(出色)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13) 家庭之義: 가정의 의례, 즉 왕부지 셋째 형의 상사를 말함.

14) 我文: 이름이 원수(元修)로 왕량신(王良臣)의 아들이며 왕부지의 족질(族姪).

其勸戒，或不妨令放敵<sup>15)</sup>兩人知之。止期一切忘情，一家歡聚而已。縷縷不盡。七十老人夫之白。

## 2.2 조카 아문에게 보내네(與我文姪)

우리 조카는 성정이 온화하고 차분하여 온 가문이 탄복하는 바이네. 앞장서서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숙부 장례를 치르러 와서 서로 만나니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었으나 일이 번잡하고 손님들이 많아서 조용히 담화를 극진하게 나눌 수 없어서 유감이었네! 편지 한 통을 써서 여러 아우와 조카들에게 보내니 번거롭지만 두루 전달하여 읽어주었으면 하네. 성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읽고 나면 지일(指日) 아우에게도 보내주었으면 하네. 이것은 내가 그냥 해본 얘기라네. 우리 조카가 날마다 그들과 왕래하며 선(善)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함양하고 훈도하는 힘에 의한 것이라네. 이전에 종이 여러 폭 있기에 가지고 돌아가 글을 쓰려 했지만, 첩(帖) 만드는 사람이 용도를 구별하지 않고 한데 섞어서 사용해 버려서 겨우 두 폭만을 찾을 수 있었네. 그래서 여기에 급히 글을 써서 보내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네. 단지 훗날 내가 죽어 풀이 시든 황폐한 언덕에 묻혔을 때, 글을 보면 마치 숙부를 보는 것과 같을 뿐이네. 나를 한번 보러 왔으면 하는데 잡다한 일 멈추고 10일 정도 만나서 상의 좀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생전에 현제(賢弟)를 만나길 원한다네. 족보 일에 있어서 나는 단지 편집하고 책무를 독려하는 수고를 맡을 수 있을 뿐이네. 지금 이 족보 일을 일으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유중(幼童)에게 달려 있으니, 그와 더불어 상의하고 결정하기 바라네. 숙부 왕부지 씬.

吾姪和藹<sup>16)</sup>安靜，一家所服。倡先遠涉致祭於叔兄，相見之下，悲喜交

15) 放敵: 반(放)은 왕부지의 둘째, 어(敵)는 넷째 아들.

16) 和藹: 성정(性情)이 온화하고 태도가 친근함.

集。而事冗客衆，不能從容盡談，爲恨恨耳！一札寄衆位弟姪，煩徧致之。城中衆位看畢，乃寄指日叔。愚但空言之。吾姪日與周旋<sup>17)</sup>，以善養人，全賴涵育<sup>18)</sup>薰陶之力也。前有紙數幅，思攜歸書，爲裁帖者混用，僅覓紙二幅，草次<sup>19)</sup>書呈，不足爲重。他日衰草荒丘，如見老叔耳。承許過我一看，可輟冗作十日聚首<sup>20)</sup>否？生前願見賢者也。族譜事，愚但能任譔次<sup>21)</sup>督責之勞。目前興事，全在幼重，幸與決商之。叔夫之白。

### 2.3 조카 아문에게 또 보내네(又與我文姪)

우리 조카와 이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 노쇠하고 병치레하는 노인이 다시 3년에 가까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자네에게 몇 글자 전하고자 하네. 전에 조카가 이르기를, 나를 방문해서 여러 날 이런 저런 얘기했으면 하는 것이 매우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지. 생각하건데, 지금 시국이 어려워지고 가문에는 번잡하고 잡다한 일들이 쌓여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수 없을 것 같네. 나는 장락(長樂)이 돌아간 뒤로 아직까지 문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다네. 그래서 정신으로 먼 곳까지 달리고 생각으로 멀리까지 가보지만 단지 몽상을 꾸는 것 같다네. 독서하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가문에 오랫동안 전해야 할 중요한 도리인데, 우리 조카가 편안하고 안정된 자질로써 이를 닦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하네. 나는 매번 두 아들을 훈계하여 우리 조카를 본받으라고 하네. 배움에 있어서 단계를 뛰어 넘어 고원한 것을 학습하는 것은 가까워서 가문의 규범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네. 가문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이 있다네. 마음을 담박하게 갖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감화가

17) 周旋: 왕래하다. 교제하다.

18) 涵育: 함양하고 화육(化育)하다.

19) 草次: 급하게 혹은 대충.

20) 聚首: 만나다. 짧은 시간에 만나 상의하다.

21) 譔次: 편집하고 배열하다.



있을 뿐이라네.

與姪別，遂已三易歲矣。衰病老人，更能得幾三歲，通一字於左右<sup>22)</sup>也。前云欲枉步<sup>23)</sup>過我，作數日談，甚爲願望。想世局艱難，家累煩冗，不能如願。愚自長樂歸後，未嘗出戶。馳情遙念，但作夢想耳。讀書教子，是傳家長久之要道，吾姪以寧靜之姿，修此甚爲易易<sup>24)</sup>。每戒兩兒，令以吾姪爲法。躡等<sup>25)</sup>高遠，不如近守矩範。家衆人各有心。淡然無求，則人自有感化耳。

## 2.4 조카 유중에게 보내네(與幼重姪)

슬프고 경황이 없어서 우리 조카와 말 한 마디도 나눌 수 없었네. 듣자하니, 나를 방문하러 온다니 기대하고 기대하겠네. 조카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의당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근본에서 생각해야 한다네. (나이 들어) 도모가 많으면 도리어 실패도 많으니 노기(老氣)를 발동하여 모욕을 부르는 것은 힘써 피해야 하고, 힘써 피해야 한다네! 선물을 보내어 여러 아우, 조카들에게 감사를 표하니 아문(我文) 조카가 번거롭지만 두루 전달해주었으면 하네. 죽보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네? 단지 그림의 떡이 될까 염려스럽네.

哀冗之下，不能與吾姪一言。聞將過我，企望企望。姪年漸老，宜步步在根本上著想。多謀多敗，動氣召辱，切戒<sup>26)</sup>，切戒！有公禮<sup>27)</sup>謝衆弟姪，煩我文

22) 左右: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좌우(左右)라고 하여 존경을 나타냄. 서찰에서도 상용하여 상대를 호칭함.

23) 枉步: 노보(勞步)와 같은 의미. 사람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정중한 말.

24) 易易: 매우 쉽다.

25) 躡等: 단계를 뛰어넘음. 《예기(禮記)·학기(學記)》(“유년자는 강의를 들을 뿐이고 질문하지 않으니, 배움에 단계를 뛰어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幼者聽而弗問，學不躡等也。).”)에 용례가 있다.

26) 切戒: 힘써 피하고 면해야 함.

偏致之。族譜事何如？恐只成畫餅<sup>28)</sup>耳。

## 2.5 조카 유중에게 또 보내네(又與幼重姪)

병중에 있지 않은 날이 없으니 혈기는 모두 쇠진하고 단지 정신만 남았을 뿐이네. 셋째 조카 아들 문장에는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니 그의 성공을 전망한다네. 단지 걱정하는 것은 문장을 쓰는 데 너무 무겁게 하면 거칠고 저속에 가깝게 된다네. 그래서 내가 이미 어(敵)에게 부탁하여 칭아하고 수려한 필법으로 그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였네. 셋째 조카 아들은 사람됨이가 또한 온순하며 침착하지만 부족한 점은 세상의 일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이네. 우리 가문은 빈궁한데다가 관직 없이 산 지가 1, 2년이 되었으니 아마도 처량하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나 보네. 장자(莊子)는 “기호와 욕망을 깊이 추구하는 자는 그의 천부의 영기(靈機)가 알아진다” 하였는데, 모든 것이 기호와 욕망이지, 단지 소리·색·냄새·맛만이 아니라네. 근자에 왕씨 종족(宗族)의 방계(房系)와 세계(世系)를 초안했는데 자못 규모가 있음을 알았네. 그래서 급히 필요한 것은 (우리 문중에서) 따로 나열해야 할 조부와 자손의 이름이니, 조카가 신속하게 조사해 왔으면 하네. 쓰든지 새기든지 하는 것은 결국 조카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네.

無日不在病中，血氣俱盡，但靈明<sup>29)</sup>在耳。三姪孫文字亦有線路<sup>30)</sup>，可望其成。但所患者，下筆太重則近麤俗。已囑故今教之以清秀<sup>31)</sup>。爲人亦知順潛，所不足者，知事太早。我家窮，閒住<sup>32)</sup>一二年，或可習爲蕭散<sup>33)</sup>。莊子

27) 公禮: 원래는 관가에 보내는 선물, 문장에서는 선물.

28) 畫餅: 그림의 떡, 즉 허명무실의 의미.

29) 靈明: 신명(神明), 정신의 의미.

30) 線路: 어떤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방법.

31) 清秀: 청려하고 빼어남, 아름답고 속되지 않음.

32) 閑居: 관직이 없이 집에서 한가롭게 지냄.

曰：『其嗜欲深者其天機淺。』<sup>34)</sup> 一切皆是嗜欲，非但聲色臭味也。近草一官房世系，覺有次第<sup>35)</sup>。急須者別單<sup>36)</sup>所開祖父子孫名，姪速查來。或寫或刻，總俟姪商之。

## 2.6 이필 아우에게 보내네(與爾弼弟)

장락(長樂)과 이별하고 오랫동안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네. 왕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길, 현제(賢弟)의 근황이 매우 좋다고 하니 기쁘고 위로가 되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노쇠해져 일 년 내내 문 밖을 나갈 수 없으니, 서로 만날 날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네. 족보 찬수하는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서, 가문 사람들의 차서가 뒤죽박죽되었으니 단지 줄곧 탄식만 할 뿐이네! 현제는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하며 마음 가짐이 강직하고 지극히 공정하니 아들과 조카들을 교육하여 또한 안정되고 분수를 지키며 화목하고 다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네.

長樂一別，遂久不得一信。往來人言賢弟近況甚好，足爲欣慰。而愚日衰一日，經年不能出戶，未知更有相會之日否也？譜議不成，族中人錯亂至此，但堪一歎！賢弟年富力強，秉心剛直，至公至正，教子姪輩亦安靜守分，和睦不爭，是所望也。

33) 蕭散: 처량하다.

34) “其嗜欲深者其天機淺”: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나오는 말.

35) 次第: 규모의 의미.

36) 別單: ‘別’은 별도로, ‘單’은 단독으로 이로써 ‘別單’은 ‘따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7 아들과 조카들 보게(示子姪)

사람이 뜻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는 나쁜 습관을 벗어나고자 함에 데 있단다. 나쁜 습관이 사람을 물들이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하는 것과 같구나. 나쁜 습관은 그 처음에는 단서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물들고 그 끝은 언제인지 알 수도 없게 된단다. (나쁜 습관에 물들면) 사람들은 바늘 끝만한 작은 이익을 위해 주먹을 휘두르며 남들과 다툰단다. 심지어 광분할 때의 한 순간은 아홉 마리 소로도 제어하지 못한단다. 어찌 대장부가 직접 시험해 보아야 알 수 있겠느냐! 저 나쁜 습관에 물든 사람들은 불쌍하고도 가련하니, 나는 실로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드는구나.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인간 세상은 이전에는 천고의 세월이 있었고 이후에는 백대가 있으며, (공간적으로) 광대함은 구주(九州)에 이르고 구주(九州) 변방은 또 사방 먼 지역까지 미친단다. (이러한 시공 속에서) 사람이 어찌 (한 시기나 한 곳에) 속박되고 구속될 수 있겠느냐? 어찌 천리마가 대중 속에서 세파 행렬을 따르고 부류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세상에는 무궁무진한 재물이 있지만 어찌 내가 추구하여 쌓으려는 것이겠느냐? 눈앞의 사람들 모두 내가 다스려서 치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들떠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나를 번거롭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sup>37)</sup> 사람됨이 세속을 초탈하여 편안하고 화평해야 하며 마음은 얽매임이 없어야 한단다. 정정당당하면서도 비가 내린 뒤 하늘이 맑을 때처럼 맑고 청신해야 한단다. 이러한 마음으로 독서해야 고인의 뜻을 얻을 수 있단다. 이러한 마음으로 입신해야 호걸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단다. 이러한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겨야 오로지 뜻(志)으로 봉양하는 것이요. 이러한 마음으로 친구와 교제해야 의(義)에 합치되는 것이란다. 오직 그것을 명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온

37) 平慧善 注譯, 周鳳五 校閱 《新譯薑齋文集》에서는 “눈앞의 사람들 모두 내가 다스리는 치적이 될 수 있지만 단지 달가워하지 않을 뿐이니 설마 그들로 하여금 나의 부담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자는 “눈앞에서 명리를 좇고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이 하고 행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한 번 돌아보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또 어찌 그들의 영향을 받겠는가?”라고 해석하였다. (【精品文獻·王夫之的故事】 <http://www.doc88.com/p-019657187375.html>)

화하며 화평하다. 강렬한 빛이 하늘을 빛나게 하고 향기가 지상에 흘러 퍼진다. 깊은 못은 푸른빛을 비추고, 봄 산은 비취빛을 담고 있다. 장수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내 말을 생각하고 잊지 말길 바라네.

立志之始，在脫習氣<sup>38</sup>). 習氣薰人，不醪而醉。其始無端，其終無謂。袖中揮拳，針尖競利。狂在須臾，九牛莫制。豈有丈夫，忍以身試！彼可憐憫，我實慚愧。前有千古，後有百世。廣延九州，旁及四裔<sup>39</sup>). 何所羈絡<sup>40</sup>)？何所拘執？焉有騏駒，隨行逐隊？無盡之財，豈吾之積。目前之人，皆吾之治。特不屑耳，豈爲吾累。瀟灑<sup>41</sup>)安康，天君<sup>42</sup>)無繫。亭亭鼎鼎<sup>43</sup>)，風光月霽<sup>44</sup>)。以之讀書，得古人意。以之立身，踞豪傑地。以之事親，所養惟志。以之交友，所合惟義。惟其超越，是以和易<sup>45</sup>)。光芒燭天，芳菲匝地。深潭映碧，春山凝翠。壽考<sup>46</sup>)維祺<sup>47</sup>)，念之不昧。

38) 習氣: 습관·습성. 나중에는 대부분 점차 형성되는 불량한 습관 혹은 작풍을 가리킴.

39) 四裔: 사방 변방의 먼 지역.

40) 羈絡: 재갈을 물리고 잡아매다. 잡아서 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활동을 못하게 함 혹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

41) 瀟灑: 초탈하여 구속되지 않은 모습, 초일하여 세속을 벗어난 모습.

42) 天君: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사유기관을 주도하기 때문에 마음을 천군(天君)이라 함. 《순자(荀子)·천론(天論)》(“마음이 가운데 있으면서 오관을 다스리는데 무릇 이를 천군(天君)이라 한다(天居中虛，以治五官，夫是之謂天君。).”)에 용례가 있다.

43) 丁丁鼎鼎: 《新譯薑齋文集》에서는 “정정(丁丁)은 고결한 모습, 정정(鼎鼎)은 성대(盛大)”라고 주석하고, “高潔盛大，胸襟坦白”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해석할 경우 ‘盛大’의 미가 모호하다. ‘丁丁鼎鼎’을 우리 말로 대치시킬 경우, 정정당당(正正堂堂)이 가장 적확하다. 이에 혹자는 “正正堂堂，如風光月霽一般”이라고 해석하였다.(【精品文獻·王夫之的故事】 <http://www.doc88.com/p-019657187375.html>)

44) 風光月霽: 비가 지나가고 하늘이 맑았을 때 밝고 청신할 때의 모습. 또한 흥금이 툭 터진 것, 마음이 술직, 담박함을 비유.

45) 和易: 온화하며 안정됨.《예기(禮記)·학기(學記)》(“화락과 평이로써 사유하게 하면 훌륭한 교유라 할 수 있다(和易以思，可謂善喻矣。).”)에 용례가 있다.

46) 壽考: 장수의 의미.《시(詩)·대아(大雅)·역박(棫朴)》(“주왕은 수명도 무궁하시니, 어찌 백성을 일으키지 않으리(周王壽考，遐不作人。).”)에 용례가 있다.

47) 壽考維祺: 수고(壽考)는 장수, 기(祺)는 행복·길상의 의미.《시(詩)·대아(大雅)·행위(行葦)》(“오래 오래 사시고 행복하셔서, 큰 복을 누리소서(壽考維祺，以介景福。).”)에 용례가 있다.

## 2.8 아문 조카 보게(示姪我文)

옛 사람이 이르길, 독서할 때는 반드시 글자를 알아야 한다고 했네. 한 자가 만자의 근본이 되는데 이 자를 알아야 하니 육경(六經)의 취지가 모두 이 글자 속에 총괄되어 있네. 이 한 자가 무엇이겠는가? ‘효(孝)’라네.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천자만홍의 꽃이 피고, 바람을 맞이하며 해를 향해 미소 짓고, 화창한 춘경이 되고, 가을 과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드리워지니, 모두 이 뿌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네. 그러니 항시 즐거운 마음과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덕의 근본인 효를 배양하고 길러야 한다네. 바라건대, 우리 가문의 재사(才士)들은 이에 힘써야 한다네.

古人云，讀書須要識字。一字爲萬字之本，識得此字，六經總括在內。一字者何？孝是也。如木有根，萬紫千紅，迎風笑日；駘蕩春光，纍垂秋實，都從此發去。怡情下氣<sup>48)</sup>，培植德本，願吾宗英<sup>49)</sup>勉之。

## 2.9 아문 조카 또 보게(又)

두보가 쓴 시구에 “우리 가문의 수재(秀才) 자손, 질박한 고인의 품모가 있네”라고 하였다네. 세상에 어디 고금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옛날의 복희씨(伏羲氏)·무희씨(無懷氏)·갈천씨(葛天氏)가 눈을 감으면 안전에 있다네. 명주(明珠)는 좋은 옥이어서 만년이 되어도 그 광택이 변하지 않는다네. 타인들은 연기처럼 가벼이 움직이지만 나는 거울처럼 안정되니, 분분하고 번잡한 허상과 가상이 내 눈을 빼앗고 놀란 파도가 내 혼백을 쓸어버린다 해도 한 눈으로라도 이러한 허상과 가상을 간파할 수 있으니,

48) 下氣: 태도가 공손한 것, 심기가 안정된 것을 말함.

49) 宗英: 가문, 문중에서 재사(才士)를 말함.

그렇다면 자신을 어찌 삼제(三帝)의 아래로 처하게 해야겠는가?

杜陵有句云：『吾宗秀孫子，質樸古人風。』<sup>50)</sup>世何有今古，此心一定，義皇懷葛<sup>51)</sup>，凝目即在。明珠良玉，萬年不改其光輝。民動如煙，我靜如鏡，空花<sup>52)</sup>奪目，驚波蕩魄，一眼覷破，置身<sup>53)</sup>豈在三(年)<sup>54)</sup> [季]<sup>55)</sup>下哉！

### 3. 결론

왕부지의 척독은 그가 가문의 아우와 조카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 내용은 입신(立身)의 도리와 가문의 법도를 논한 것, 족보 편수에 관한 것 등이다. 그는 서신을 통해 아우·조카들에게 가문의 전통을 잘 유지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가문에서 발생한 좋지 못한 일을 말하여 경계시키고자 하였다. 왕부지의 척독 가운데 특히 제7수 <아들과 조카들 보게(示子姪)>는 중국 역대 家訓 및 勸學詩 가운데 손꼽히는 명문이다. 그의 척독은 그 장단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제7수 <아들과 조카들 보게(示子姪)>는 《강재시승고(薑齋詩贍稿)》의 <질손 생번에레 주는 시(示姪孫生蕃詩)>와 더불어 시의 형식이고, [i]로 운미를 조성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의 척독은 또한 간혹 《莊子》

50) “吾宗秀孫子，質樸古人風。”: 두보의 <송두공부집(宋杜工部集)> 권15에 나온다. 각종 판본에는 수(秀)가 노(老)로 되어 있음.

51) 義皇懷葛: 복희씨(伏羲氏)·무희씨(無懷氏)·갈천씨(葛天氏)를 말함.

52) 空花: 불교 용어. 눈병이 난 사람의 시각에 어렴풋이 보이는 꽃. 분분하고 번잡한 망상과 가상을 비유.

53) 置身: 자기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함을 말함.

54) 年: 《신역강재문집》에서는 년(年)이 되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후문장의 맥락에 따라 제(帝)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해석함.

55) 季: “형양(衡陽) 각본(刻本)《보유(補遺)》에는 ‘계(季)’로 되어 있고, 《족보(族譜)》《가형찬술(家型纂述)》에서는 이 문장을 수록하고 또한 ‘계(季)’로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고친다. 고찰하건데, ‘삼계(三季)’는 하·상·주(夏商周) 3대의 말년을 의미한다.”(《선산전서(船山全書)》 제15책·《강재문집(薑齋文集)》, 146쪽)

의 어구나 杜甫의 시구를 인용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감화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왕부지의 척독은 '修身齊家'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친지와 교류한 생활감정을 반영함으로써 학술문장 등에서 볼 수 없는 개인 삶의 자취와 진솔한 생활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參考文獻 >

- 王夫之 著, 《船山全書》(全 十六冊), 湖南, 嶽麓書社, 1988-1996.  
王夫之 著, 《船山遺書全集》(全 二十二冊), 臺北, 自由出版社, 民國61年.  
王夫之 著, 《王船山詩文集》(上·下),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  
王夫之 等 撰, 《清詩話·薑齋詩話》(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平慧善 注譯, 周鳳五 校閱 《新譯 薑齋文集》, 臺北, 三民書局, 1998.  
曾昭旭 著, 《王船山哲學》, 遠景出版社, 民國72.  
褚斌杰 著, 《中國古代文體概論》(增訂本), 北京大學出版社, 1990.

### < 中文提要 >

王夫之不僅悉心教導自己家族的子女, 對侄子的教育也頗具匠心。作為一個大哲學家, 思想家, 他留下十封寫給子侄的書信。“尺牘十首”, 正是王夫之寄給族中弟侄們的書信, 表現他對弟姪們的殷切期望。其主要內容是談立身之道與家族風範, 講修族譜的事。通過這些書信, 他希望他們光明正大, 和睦孝順, 讀書教子, 以保持王氏家風, 也希望他們對家族中會發生的不快, 乃至訴訟, 引以為警戒。在“尺牘十首”中, 第七首<示子姪>就是在中國歷代家訓及勸學詩之中屈指加數的名篇。“尺牘十首”在長短形式上比較自由, 但第七首<示子姪>與《薑齋詩牘稿》中的<示姪孫生蕃詩>是以詩體寫的, 而且以 [i] 造成韻尾, 足以見其特色。“尺牘十首”偶爾引用《莊子》的故事或杜甫的詩句, 來增加說服力, 感染力。它含有“修身齊家”的思想, 而且描寫與家族交流的生活感情。我們從中可以了解王夫之個人的人生足跡及真摯的



生活感情，這就是“尺牘十首”的價值和意義。

關鍵詞：王夫之，薑齋文集，尺牘，譯解，弟姪，姪孫，子姪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29.	2014. 10. 20.	2014. 11. 4.	2014. 11. 17.	2014. 11. 30.